



08-49 (통권 327호)

2008.12.19.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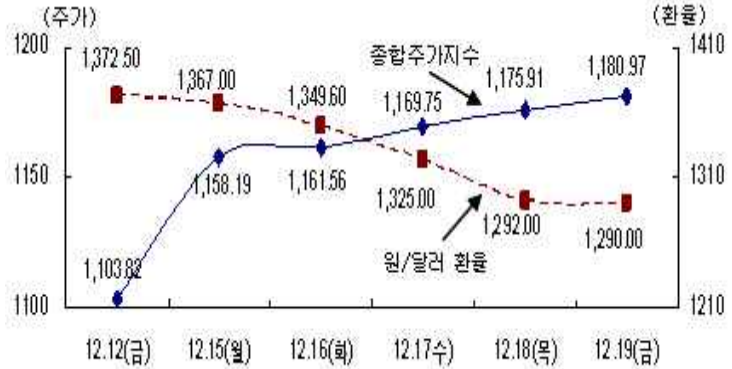


■ 북한 경제 현황과 2009년 전망

: 북한 경제, 세계 경제와 동반 침체 가능성 크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2~12.1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북한 경제 현황과 2009년 전망 : 북한 경제, 세계 경제와 동반 침체 가능성 크다	1
주간 경제 동향	17
□ 실물 부문 : 11월 수입 물가 하락세 지속	17
□ 금융 부문 : 원/달러 환율 1200원 대로 하락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통일경제센터 : 흥 순 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 이 해 정 연구원 (3669-4487,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북한 경제 현황과 2009년 전망 :

북한 경제, 세계 경제와 동반 침체 가능성 크다

1. 최근 북한 경제 현황과 문제점

2008년 북한 경제는 농업과 경공업 등의 산업 부문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적어도 제로(0%)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

(산업 생산) 농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서 소폭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농업 부문에서 2008년 곡물 생산량은 일기 호조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광공업 부문에서도 경공업 육성 정책의 효과가 적게나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서는 6자회담의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및 장비 지원으로 북한 내 발전소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어 2007년에 이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의 무역) 2008년 북한의 대외 무역은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2004년 이후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북한의 수출입 품목은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 대외무역은 상반기 북중 무역은 1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하였으나, 태국과의 무역이 5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함에 따라 2007년의 29.4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의 무역 적자 규모는 1998년 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무역 규모 확대에 따라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의 내수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같은 추세는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 2008년 남북 경협은 상업적 거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경협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2008년 10월 현재 남북간 총교역액은 15억 5,5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역의 93.9%를 차지하는 상업적 거래 증가(14.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개성공단 교역의 대폭 증가도 큰 몫을 하였다. 한편, 대북 식량 지원 등 지원성의 비상업적 거래는 전년 동기비 1/3 수준 이하로 줄어든 9,46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8년 총교역의 월별 누적 증가율은 상반기 22.6%에서 1~10월은 8.0%로, 하반기 들어 지속적인 둔화세를 시현하는 상고하저(上高下底) 현상을 보였다. 특히, 10월에는 상업적 거래마저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12.7%의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2. 북한 경제 여건 변화와 전망

2009년 북한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경기 침체로 인한 대외 무역 및 지원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남북 경협마저 더욱 위축된다면, 북한 경제 침체는 2008년보다 악화되어 마이너스 성장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우선,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성장 토대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년 김정일 70세가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해로 규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2008년에 이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 증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2009년 북한 경제는 활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과 무역 거래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북한 무역 증대가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 태국, 러시아 등이 외평채 및 CDS(Credit Default Swap) 금리의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을 겪고 있어 대북 지원 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대북 투자 및 지원성 물자 중심의 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 금융 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대북 원조 분위기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문별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선진화와 기계 정비 현대화, 경공업 사업 육성 등의 정책 추진으로 자본재 수입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북핵 협상이 정체 상태에 있어 북핵 검증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연계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원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급속도로 3단계 진입이 추진될 여지는 남아있다.

셋째, 2009년 남북 경협도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성공단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주문 감소와 12.1 조치로 인한 통행 제한 등으로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관광 사업은 남북간 대화 단절 등으로 단기간 내 재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교역과 투자 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통신 장비 제공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에 대한 실무 논의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북한 경제 활성화 과제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체 역량 확보를 위한 북한의 자구 노력과 함께,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상생·공영의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① 북한의 자체 역량 확보 과제

첫째, 경제 외적 불안 요인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남북 경협까지도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 경제 논의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핵 완결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통해 북미·북일간 국교 정상화의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의 정상 국가화 작업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

둘째, 내부 생산성 제고와 산업화 역량 확충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 채택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산업화 역량을 확충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의 특구 개발 전략과 부존 자원(광물, 지하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남북 경협의 신뢰성 유지를 통해 남북 경협의 발전적 확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해 현재 중단 위기에 처한 남북 경협사업의 재가동과 다방면의 추진으로 남북 경협을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남북 경협 활성화 과제

첫째, 남한 정부는 통일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를 확대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의 정책 반영을 통해 내부적 동의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 확대는 물론 북한 개발 자금 확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밑거름이 된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 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하에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당국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속도 조절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경협 구상을 이전의 긍정적 성과와 연계 확대하는 실용적 발전 계획 운용이 요구된다.

< 북한 경제 현황과 2009년 전망 >

최근 북한 경제 평가

개요	- 2008년 북한 경제는 농업과 경공업 등 산업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제로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됨
문제점	- 거시 경제 : 산업 생산 인프라 취약, 선진 기술 자본 유입 미흡 - 대외 무역 : 무역 적자 규모 증대, 무역 규모 정체, 특정국에 편중 - 남북 경협 :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법제도화 미정착, 경협 인프라 미비,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영향

북한 경제 여건 변화와 전망

전망	- 2009년 북한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경기 침체로 인한 대외 무역 및 지원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됨 · 정체 국면 남북 관계 유지로 남북 경협 마저 위축된다면, 북한 경제 침체 더욱 악화 전망
전망 여건	- 경제 정책 :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과 경공업 생산 증대 노력 지속
	- 주요 거래국 경제 : 국제 금융 위기로 주요 교역국의 지원성 물자 교역 감소 예상 ·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및 원조가 감소될 경우 북한 경제 침체 가속화 우려
	- 정치 외교 관계 : 북핵 협상과 남북 관계는 진전과 서행의 현 교착 상태가 지속 전망
	- 남북 경협 : 개성공단 사업 차질, 관광 사업 중단 등으로 급격히 위축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북한의 자체 역량 확보 과제

- 경제 외적 불안 요인 최소화 :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 내부 생산성 제고와 산업화 역량 확충 : 농업 개혁, 경공업 발전, 특구 개발 가속화
- 남북 경협의 신뢰성 유지를 통한 발전적 확대 모색

◆ 남북 경협 활성화 과제

- 남한 정부는 통일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 확대 필요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1. 최근 북한 경제 현황

1) 거시 경제

○ 최근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

- 북한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북한의 GDP는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전년(-1.1%)보다 감소폭이 확대¹⁾
- 2007년의 감소폭 확대는 기상 조건 악화 등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농림어업 부문이 -9.4%의 성장세를 기록한 때문으로 추정됨
- 또한 경공업과 건설업이 각각 -1.7%, -1.5%를 기록한 것도 관련이 깊음

○ 2008년 추정 : 2007년 보다는 다소 나아진 제로 성장률에 가까운 성장 예상

- 2007년 특히 저조했던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서 호조
- 농업 : 2008년 곡물 생산량은 일기 호조로 소폭 증가 예상(WFP/FAO는 2007년 360만 톤 → 2008년 421만 톤으로 17% 증가 추정)²⁾
- 광공업 : 경공업 육성 정책과 6자회담에 따른 주변국의 중유 제공 효과는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³⁾
- 전기가스수도업 : 6자회담의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및 장비 지원으로 북한 내 발전소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어 2007년에 이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⁴⁾

1) 한국은행,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8. 6

2) 최근 발표된 FAO와 WFP의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곡물 생산량은 도정 전 기준으로 전년의 360만 톤 대비 약 17% 증가한 421만 톤으로 추정.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8년 12월 8일자 보고서 참조

3)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 경공업省 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1.4배 장성했다”고 보도(7.24 중앙방송)하였으며, “기계공업부문의 생산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1.2배 장성했다”고 보도(8.28 중앙방송),

4) 연합뉴스, 北, 동평양화력발전소 현대화...6자회담 덕분, 2008. 5. 28일자 보도. 실제로 조선신보는 5월 28일 “수도에 있는 전력생산 기지의 하나인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개건, 현대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

(단위 : %)

	2005	2006	2007
농림어업	5.0	-2.6	-9.4
광공업	4.4	0.9	0.7
광업	3.5	1.9	0.4
제조업	4.9	0.4	0.8
(경공업)	(3.9)	(-0.6)	(-1.7)
(중화학공업)	(5.4)	(1.1)	(2.3)
전기가스수도업	4.4	2.7	4.8
건설업	6.1	-11.5	-1.5
서비스업	1.3	1.1	1.7
(정부)	(0.6)	(0.8)	(1.8)
(기타)	(2.9)	(1.8)	(1.5)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8. 6. 18. p. 3

-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이를 경제 건설과 동격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⁵⁾
-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이를 독려하는 것도 북한 체제의 특징을 볼 때 소정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2) 대외 무역

○ 2007년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9억 4,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는 감소,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 2004년 이후는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 무역 상대국별로는 1999년 이후, 중국, 태국과는 무역 비중은 증가한 반면, 일본, 홍콩과의 무역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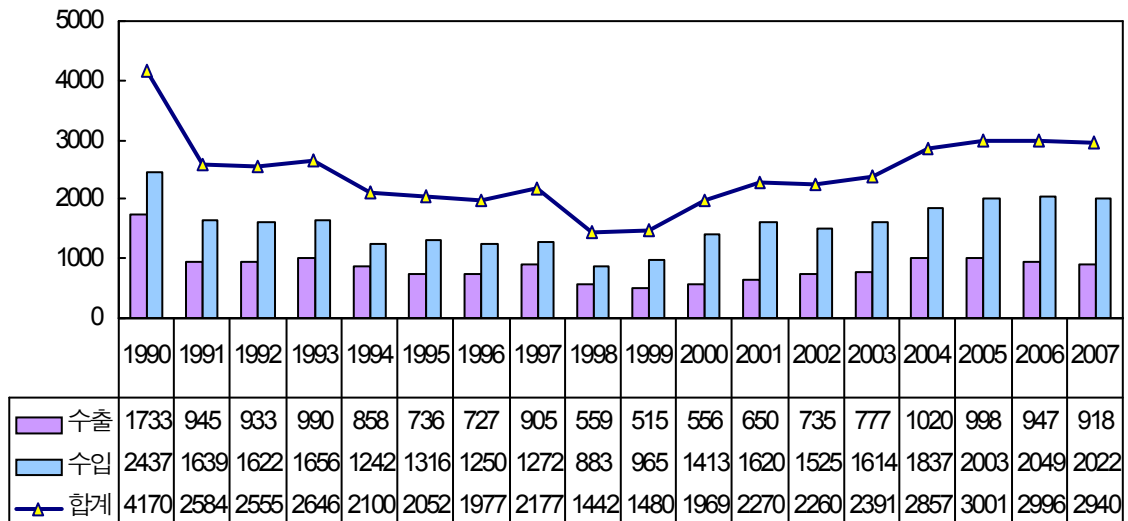
5) 실제로 북한은 지난 7월, 올 상반기 북한의 산업생산이 4대 선행부문과 인민소비품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당초의 목표를 크게 상회하였다고 주장.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는 편직(117%), 비단(116%), 방직기계(105%) 등의 부문은 물론 전력(105.9%), 석탄(101.7~107.2%), 철도수송(100.3%) 등 초과 생산 발표.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북, 상반기 경제 계획 초과 달성」, 『주간통일정세』 2008년 27호, p. 5 및 통일부, 「산업부문별 상반기 계획 초과 수행 보도」, 『북한동향』 제898호, p. 3 참조

6) 2008년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대두되기 전인 6월 16일까지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경제 부문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북한동향』 제895호,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7월호 p. 115 참조

- 2007년 북한의 총 무역액 중 중국과의 무역액은 19억 7,397만 달러로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태국과 러시아가 각각 7.8%, 5.4%를 차지

< 북한의 연도별 대외 무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KOTRA,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북한의 수출입 품목은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 수출 : 1999년 이후 동식물성 제품과 섬유 제품의 수출이 다소 감소한 반면, 비금속류의 수출은 상승하였으며, 광물성 생산품은 2003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수입 : 식료품과 광물성 생산품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음

○ 2008년 대외 무역은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상반기 북중 무역은 11.5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태국과의 무역이 5천 3백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를 기록함으로써 2007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7)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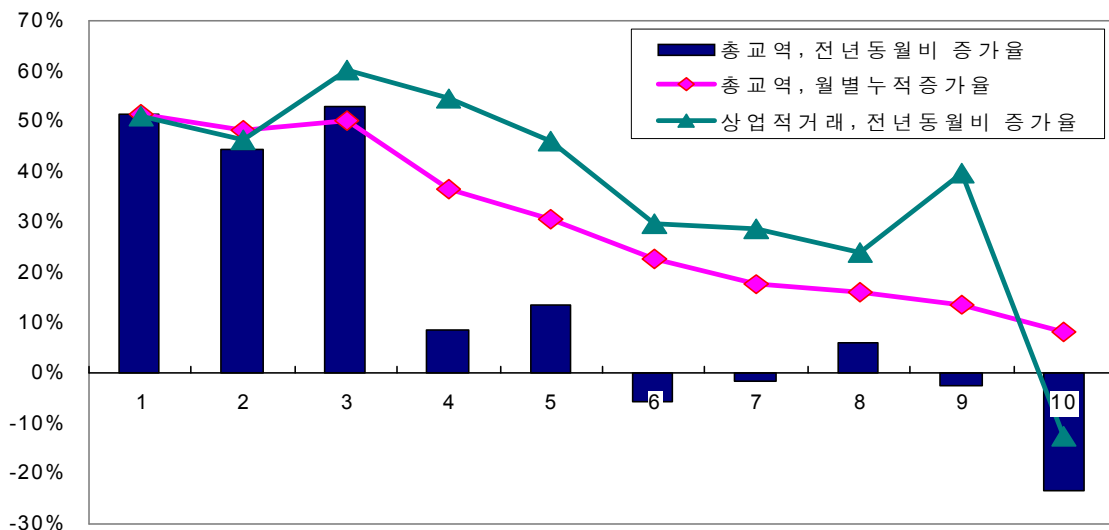
3) 남북 경협

- **상업적 거래 비중 증가** : 2008년 10월 현재 남북간 교역액은 15억 5,5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교역액 14억 3,958만 달러 대비 8.0% 증가
 - 2008년 남북교역의 증가 요인은 남북교역의 93.9%를 차지하는 상업적 거래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11.1억 달러 대비 32.1% 증가에 기인한 것
 - 상업적 거래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은 52.0%를 차지하고 있음⁸⁾
 - 한편, 대북 식량 지원 등 지원성의 비상업적 거래는 전년 동기비 1/3 수준 이하로 줄어든 9,469만 달러를 기록

- **하반기 들어 감소세 시현** : 2008년 총교역의 월별 누적 증가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 감소세 역력
 - 월별 누적 증가율은 상반기 22.6%에서 1~10월은 8.0%로, 하반기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 시현
 - 특히, 10월에는 상업적 거래마저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12.7%의 감소세로 반전

< 2008년 1~10월중 남북교역 동향 >

(단위 :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참조.

8) 이는 개성공단 교역의 대폭 증가(6억 78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로 경제협력사업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

2. 북한 경제의 문제점

1) 거시 경제 부문의 문제점

○ 자체 역량 마련 미흡

- 북한 경제는 1999년도 이후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6년과 2007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1999년 이후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산업 생산력의 회복이 아니었음을 보여줌
 - 2006년과 2007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연이은 기상 조건의 악화로 인한 농업 생산물 저하에 따른 것임
 - 북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의 반전은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세가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는 아니었음을 의미
- 북한 내부에 성장을 위한 투입 변수가 거의 고갈되어 있으므로 경제 성장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자체적 내부 역량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 정책의 보수화 : 시장 통제 강화

- 2008년 8월 중순 이후 2008년 상반기 북한 경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선전전에 돌입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연설에 나타난 개혁·개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역설하고 있음⁹⁾
 - 지난 8월말 시장에서의 곡물 매점매석을 이유로 일부 거래인들이 처벌된 것을 시작으로 청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장단속이 다시 실시되고, 개인 수공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져 시장 통제가 본격화 되고 있음¹⁰⁾

9) 통일부, 「북한방송 주요논조」, '김정일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선진', 2008. 9. 29 등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9월, pp. 55~56. 참조.

1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및 연합뉴스 "북 청진시장서 단속원과 여성들 또 마찰", 2008. 9. 9일 기사 등

- 보수적이고 경직된 경제 정책의 추진이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 북한의 식량과 경제사정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통제가 경직적으로 흐를 경우, 1990년대 중반 함경도 등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경직적 정책 운영에 따른 기근 등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¹¹⁾

2) 대외 무역의 문제점

○ 무역 적자 규모의 증가

- 북한의 무역 적자 규모는 1998년 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1억 40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의 내수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기인
- 폐쇄적인 경제 정책에 따른 자본재 수입 및 선진 기술 도입 부진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미흡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

○ 무역 규모의 정체

- 2004년 이후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2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사이에 정체
- 정치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감소 추세
- 중국과 남한 의존도 심화 : 남북 경협을 포함한 북한의 2007년 무역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1.7%, 남한이 37.9%에 이름(중국 : 2002년 25.4% → 2007년 41.7%, 남한 : 2002년 22.1% → 2007년 37.9%)
- 남한을 제외할 때, 중국을 비롯한 10대 무역 대상국¹²⁾과의 무역액이 전체 무역규모의 80~90%를 차지하는 다양성의 부족으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불안정한 상태

11)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9월, p. 56. 참조.

12) 중국, 태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대만, 알제리 등임

○ 낙후된 수출 구조

- 후진국형 수출 구조 : 2007년 북한 수출의 54.9%가 광물성 생산품, 비금속류 등 원자재, 11.9%는 경공업 제품인 의류로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수출입

3) 남북 경협 의 문제점

○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과 법·제도화 미정착

- 실질적인 4대 남북 경협합의서와 3통(통행·통관·통신)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음
- 4대 남북 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조정절차에 관한 합의를 말함

○ 남북 경협 인프라 마련 미비

- 북한의 인적, 물적, 제도적 부문에서 경협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남북 경협 사업의 경제적 수익 실현이 부족한 실정
-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남북 경협 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투자 자금 회수 및 본격 가동을 통한 대규모 수익 창출 기업이 많지 않음

○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영향

- 남북교역이 경제 외적 불안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2008년 남북교역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개성공단 사업마저도 10월 이후 증가율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2009년 남북 경협의 전망도 어두움 (개성공단 전년 동월비 증가율 : 1월 138.2% → 10월 34.0%)

3. 북한 경제 여건 변화와 전망

1) 경제 정책 및 내부 여건

- **경제 정책** : 김일성 탄생 100년, 김정일 70세가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해로 규정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2008년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주민 기초 생필품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는 본격적 성장 토대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2008년에 이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 증대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전망** : 2009년에도 국제사회의 지원 및 남북 경협에 따른 외화 유입량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자체 역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의 북한 경제는 북핵 문제의 진전과 북미 관계 진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미국의 정책 결정 등의 시간 소요를 감안할 때 2009년 하반기부터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 거래국 경제 여건

-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 :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는 북한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특히 북한의 제1교역국인 중국이 외평채 및 CDS(Credit Default Swap) 금리의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북 투자 및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전망** : 세계 경제의 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국제 금융 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대북 원조 분위기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대외 무역 전망** : 무역 상대국의 다변화와 거래 품목의 다양화 실패로 단기간 내에 현재 무역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의 30억 달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로 대외 무역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
 - 한편, 부문별로는 자본재 수입 비중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선진화와 기계 정비 현대화, 경공업 사업 육성 정책에 기인함

3) 정치·외교적 여건

- **시나리오 전망** : 북핵 및 북미관계, 남북관계, 대외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다음의 3가지 경우를 상정
 - **낙관적 시나리오** : 순조로운 북핵 폐기 절차 이행과 정부의 유연한 대북 정책 추진이 이어질 경우로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비관적 시나리오** : 북미간 대결과 남북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중립적 시나리오** : 북핵 협상 및 남북 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로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정치·외교적 여건별 시나리오 >

	낙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중립적 시나리오
북핵·북미관계	- 북핵 해결 - 북미 국교정상화 추진	- 북미간 대결구도	- 핵 협상의 진전과 서행 지속
남북관계	- 유연한 대북정책 - 남북 경협 확대 (대규모 SOC 사업 등)	- 남북간 상호 비방 심화	- 현 수준의 제한적 경협 지속
대외관계	- 국제사회 지원 확대 - 외국인 투자 활성화	- 대외 원조 중단	- 북핵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외부 지원 조절

- **전망** :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진전과 서행을 지속하며, 남북 관계는 정체 상태의 현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
 - **(북핵을 비롯한 북미관계)** 미국의 오바마 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조정 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핵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핵 협상과 관련하여 진전과 서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북미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당선자의 노력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급속도로 3단계 진입이 추진될 여지도 남아있음
 -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2008년과 비슷한 정체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대규모 경협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대외관계)** 국제사회의 지원은 핵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보상 및 징계의 성격으로 지원 규모와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4) 남북 경협

- **전망** : 북핵 협상 지연과 현 상태의 남북 관계 유지 등으로 2009년 남북 경협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임
- **개성공단 사업 차질** :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주문 감소와 12. 1 조치로 인한 통행 제한 등으로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
 - 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대표적인 남북 상생의 경협 사업으로 인식되고 평가되어온 만큼, 통신 장비 제공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에 대한 실무 논의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관광 사업의 중단** : 관광 사업 중단은 관련 교역과 투자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다만, 남북 관광 사업 중단의 장기화는 남북 관계 및 경협에 직간접적인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의 돌파구 마련 노력을 통해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지자체들의 의욕적 경험 추진 계획** : 인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통일경제 특구 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경기도의 임태희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하여,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설치하고 독립적인 자유경제 지대로 운영하도록 계획
 - 인천의 이경재 의원도 강화도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 북한 개풍 경제특구 및 나들섬과 연결시킬 경우 평화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남북경제특별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별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2009년 남북 경험 여건 전망 >

경제 외적 측면	북핵 문제(△)	- 북핵 협상 지연으로 교착 상태 지속 예상
	남북 관계(×)	- 정체 상태의 남북 관계, 당분간 유지 전망
	북한 대내 정책(×)	- 체제 결속과 단속 강화
경험 사업	개성공단 사업(△)	- 12. 1 조치 이후 입주기업들의 불안감 고조 · 생산 활동과 신규 투자 차질 우려
	남북 관광 사업(△)	-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모두 중단된 상황 · 남북관계 돌파구로 활용될 여지 존재
	지자체의 노력(△)	- 개성공단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추진 기대 · 단, 지자체간 이해 충돌 등으로 실제 이행은 미지수

참고 : 긍정적 요소는 ○, 중립적 요소는 △, 부정적 요소는 ×로 표기

4.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북한의 자체 역량 확보 과제

○ 경제 외적 불안 요인 최소화 노력

-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남북 경협까지도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 경제 논의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음
- 북핵 2단계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통해 북미·북일간 국교 정상화의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의 정상국가화 작업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음

○ 남북 경협의 신뢰성 유지를 통한 발전적 확대 모색

-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사업과 중단 위기에 처한 남북 경협사업의 재가동과 다방면의 추진을 통해 남북 경협을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함

○ 내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속 발전 가능 기반 조성

-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 채택 등을 통해 북한 경제가 성장을 위한 자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특구 개발 전략을 통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① 농업 부문 개혁

- 단기적으로는 수입 및 국제 원조를 통한 식량난 해결¹³⁾,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완전 자급 추구
- 인도적 원조에만 의존하는 일방 통행식 교류는 주는 쪽에는 원조 피로감을, 받는 쪽에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자구 노력의 동기를 박탈하므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 정책 추진이 필요

13)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농업 생산 기반이 거의 붕괴되어 있는 실정에서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현재 북한의 식량 생산 능력은 총수요량의 70~75% 정도를 자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식량을 100% 자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 비료, 농약, 농업 생산 기술, 에너지 등의 추가적인 투입을 통해 식량 생산 능력을 제고해야 함. 또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2008 북한 곡물 조달부담 급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주평, 2008. 5 참조.

- 농업 체제 정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도입된 가족 단위의 개인영농 방식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활성화하고,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 강화와 함께 장기간 토지사용권의 인정으로 생산성 증진 추구
- 남측의 지원 사업 : 농업 기반 정비와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추진
 - (농업 기반 정비) 치수관리를 위한 댐 건설 지원 사업이나 유역단위의 황폐지 복구, 조림사업 등
 - (농자재 및 시설 지원) 비료 지원뿐만 아니라 종자 공급, 농업기자재 공급, 농업기술지도 및 교육,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 농업 체제의 구축을 지원
 - (비료 및 농기계 공장 시설 현대화) 장기적으로는 비료 및 농기계 공장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산업 발전까지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여, 생필품의 부족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2008년 북한이 주창한 인민생활제일주의와도 직결되는 부문으로 고갈된 내부 자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생존 전략임
- 내수 및 수출 동시 추구 : 북한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적은 투자를 통해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한 경공업 사업 우선 육성

③ 특구를 통한 발전 추구

- 특구 중심의 개방 정책 : 선택과 집중 전략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특구 발전 전략 추구
 - 단기간 내에는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개성공단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
- 중화학 공업의 선택적 현대화와 첨단산업의 병행 발전
 - 북한 경제가 지속발전가능한 산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강 및 비철금

- 속 등의 소재 산업과 전기·전자 및 기계, 정유 산업 등의 병행 발전이 필요
- 다만, 이들 기간산업 지역은 별도의 특구로 육성하기보다는 현재의 산업 설비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 산업단지로 개발
- 예컨대, 철강은 김책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화학은 합흥 및 선봉의 승리화학공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실시
- 또한, 경제의 첨단화와 디지털화로 단번 도약을 위해서는 전자 및 IT 산업(소프트웨어)의 육성이 필요

2) 남북 경협 활성화 과제

○ 통일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 확대

- 남북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부적 동의가 확대되어야, 현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남북 경협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 가능(☞ <참고> 자료 참조)
- 국민 10명 중 4명은 남북 관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외교 과정이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지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남북 경협사업 위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11.2%를 기록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의 기존 경협 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기업 자율적 판단 하에 계속 추진되어야 함
- 신정경분리 원칙이란 정치·안보 문제가 민간의 경협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민간 경협이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속도 조절되는 안 된다는 것임

홍 순 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이 해 정 연구원 (3669-4487, hjlee@hri.co.kr)

< 참고 >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 조사 개요

- 남북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남북 현안 및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¹⁴⁾
-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의견** :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10년은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61.1%로 압도적으로 많음
 - 6.15 공동선언의 분위기가 이어졌던 지난 2000년 10월 조사에 비해 통일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은 불가능’(11.2%→22.8%), ‘10년은 넘어야 할 것’(49.7%→61.1%) 등 통일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상당히 높아진 반면, ‘5년 이내’(4.8%→3.2%), ‘6~10년’(34.3%→12.9%) 등의 의견은 현격히 줄어들음
- **남북 관계 현 상황에 대한 의견** : ‘어떤 형태로든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50.2%)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양보까지 하면서 풀 필요는 없다’(49.8%)는 의견 대립
- **현 상황을 풀기 위한 방안** :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경협사업 등 경제 분야에서 적극 교류’(35.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무조건적인 당국간 대화’(25.1%), ‘민간 교류 적극 지원’(14.5%), ‘대북특사 파견’(8.3%),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개시’(8.1%), ‘6·15,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 표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북관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 : ‘북한 도발 등 한반도 긴장 고조’(30.6%)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민 10명 중 4명은 남북 관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외교 과정이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지 약화를 우려

14) 전화로 실시된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임. 현대경제연구원,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2008. 11. 12 발표.

- 한편, 남북 경협 사업 위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11.2%를 기록



○ 결과 분석 및 평가

- 남북 관계의 현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일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 관계 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민 10명 중 4명은 남북 관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외교 과정이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지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남북 경협 위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도 대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론과 부정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낙관론이 52.6%로 약간 우세하게 나타나 국민들의 희망적인 전망을 알 수 있음
- 남북 관계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경협사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적극 교류'(35.8%)에 대한 관심이 높음이 나타남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11월 수입 물가 하락세 지속

○ 11월 수입 물가는 환율 상승으로 자본재(6.4%)가 올랐으나 세계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15.2%)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1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10월 47.1%에서 15.1%p 하락한 32%를 기록함

- 수출 물가는 일반기계 및 운송장비제품은 올랐으나 석유화학제품과 금속제품 등이 내리면서 전월동월대비 31.5% 증가, 전월대비로는 3.3% 감소함
- 부문별로는 원자재는 농림수산물(-2.5%)과 광산물(-16.6%)이 모두 내려 전년 동월대비 15.6% 상승, 전월대비 15.2% 하락함
- 또한 중간재는 석유제품(-35.1%)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제품(4.7%)은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한편 수입 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의 비율로 나타내는 교역조건이 다소 개선되어 국민총소득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가	3/4	4/4	1/4	2/4	3/4	10월	11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3.7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7.7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23.9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8.5	-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2.4	-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5	2,382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0	3.1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0.4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86	49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65	3	-80	-20	-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1.3	10.7	7.8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1	4.8	4.5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원/달러 환율 1200원 대로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지속

- **금리**: 미 연방은행의 기준금리 체로 퍼센트로 인하 및 안전 자산 선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2.57→2.08%)
- **환율**: 미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체로 퍼센트로 인하 한데 따른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지속 (\$/€ : 1.3369→1.4240, ¥/\$: 91.21→89.44)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채권, 원화의 트리플 강세 지속

- **주가**: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경기부양 규모 확대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1,103.8→1,180.9)
- **금리**: 채권시장안정펀드 실시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 발표 및 한은의 RP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01→3.81%)
- **환율**: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372.5→1,290.0)

○ (전망)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트리플 약세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4	3/4	4/4	1/4	2/4	3/4	12.12	12.19
국내	거래소 주가	1,743.6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03.8	1,180.9
	국고채3년(%)	5.26	5.46	5.74	5.10	5.90	5.74	3.95	3.81
	원/달러	923.8	915.1	936.1	990.4	1,046.0	1,207.0	1,372.5	1,290.0
해외	DOW	13,409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629	8,605
	Nikkei	18,138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236	8,667
	미국채10년(%)	5.02	4.59	4.02	3.87	3.97	3.82	2.57	2.08
	일국채10년(%)	1.88	1.69	1.51	1.45	1.60	1.47	1.40	1.27
	달러/유로	1.3542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369	1.4240
	엔/달러	123.18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1.21	89.44
	두바이(\$/바렐)	66.42	76.64	89.06	97.66	136.65	90.60	42.53	42.4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2.18) 기준.